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 중재변인 탐색

윤 정 선

임 성 문[†]

충북대학교

연구 1에서는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Domain-Specific Risk Taking Scale)를 번안한 후, 대학생 438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6요인 구조와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다른 표집의 대학생 497명의 자료로 두 가지 연구문제를 탐구하였다. 첫째,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와 PNI(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로 측정한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를 감각추구와 이득-위험지각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검증결과 NPI자기애는 감각추구와 이득지각의 완전매개, PNI자기애는 감각추구와 이득지각의 부분매개를 통해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득-위험지각과 위험감수의 관계에서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집단분석 결과 이득-위험지각이 위험감수 전체점수로 가는 경로에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감수의 6개 하위영역으로 가는 경로들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인 조건부 자아가치감의 하위유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이전의 위험감수연구와 비교하고 자기애 유형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애, 위험감수, 감각추구, 이득-위험지각, 조건부 자아가치감

[†] 교신저자 : 임성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E-mail : sungmoon@chungbuk.ac.kr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적은 보상이지만 덜 위험한 선택을 하거나, 많은 보상을 위해 더 위험한 선택을 한다. 위험을 감수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도박에 빠지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로 삶의 질이 손상되기도 한다(이홍표, 2002; 임종훈, 2012; 유연옥, 2011).

위험감수(Risk Taking)는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처벌이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성향(Ferguson, Valenti, & Melwani, 1991)으로 정의되고, 재무관리(Becker & Steinhoff, 2014), 운전 행동(Hamstra, Bollerdijs, & Veldstra, 2011), 의사 결정(정은경, 김봄메, 손영우, 2011; Broihanne, Merli, & Roger, 2014), 사행성 게임(이홍표, 2002) 등과 관련해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구조화 및 인지욕구(박소영, 정은경, 손영우, 2012), 조절초점(정은경 등, 2011), 가족의 구조, 부모와 또래 애착(남현미, 옥선화, 2001; Hoffman, 1995), 자기애(Foster, Shenese, & Goff, 2010; Foster & Trimm, 2008),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이득과 손실(이지민, 2005) 등이 연구되었다.

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애는 현대사회의 사회문화적 흐름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자(최원희 등, 2011). 자기애는 자기사랑, 존경, 과대화를 특징으로 하는 특권의식, 과대망상 등의 경향성을 보이는 다소 부적응적인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나(Freud, 1914:1957), 빠른 변화와 개인주의적 삶의 형태를 띠는 현대사회에서 자기애적 성격특성은 개인의 좋은 대처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애의 과도한 자기도취나 특권의식은 역기능을 보여서,

개인적 수준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민족이기주의, 집단적 보복, 편견, 따돌림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일조하기도 한다(Campbell, Hoffman, Campbell, & Marchisio, 2011; Zavala & Cichocka, 2011).

매개변인 연구의 필요성

Freud(1914:1957)는 부모가 지나치게 과한 사랑과 가치감을 주었거나 또는 차갑고 거절하는 부모상을 만들어준 결과 사랑의 방향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게 된 사랑의 형태를 자기애라고 하였고, Millon(1996)은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칭찬을 많이 해준 결과 자기가치감이 웅대해져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Gray(1982)의 강화민감성 이론에 의하면 성격은 긍정 자극에 접근하거나, 혐오 자극에 회피하는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한 산물로, 자기애는 접근시스템이 더 강해 보상기회에 더 민감하고 이에 동기화된다(Foster et al., 2010; Foster & Trimm, 2008). 이때 자기애 성향자들이 위험한 상황을 덜 위험하게 인식하는지(위험지각) 아니면 보상이 주는 유혹을 억누르기 힘들어서(이득지각) 위험감수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험지각과 이득지각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이득지각만이 매개함을 밝혀, 자기애 성향자들이 위험지각은 비자기애 성향자와 비슷하지만 이득지각을 크게 하기 때문에 위험감수행동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Foster et al., 2010; Foster, Misra, & Reidy, 2009; Foster, Reidy, Misra, & Goff, 2011).

그런데 자기애가 아닌 특성들에서도 이득지각,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사한 역할을 한다. 즉 자기애와 유사하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위험지각 수준은 비슷하나 이득지각은 더 커서 위험감수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Anderson & Galinsky, 2006). 또한 5요인 성격 중 개방성이 사회적 위험감수에, 신경증과 성실성이 도덕적 위험감수에, 외향성, 성실성이 도박에 관한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위험지각은 관계없고 이득지각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쳤다(Soane, Dewberry, & Narendran, 2010). 또한 조절초점이 일상적인 위험감수 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위험지각은 관계없고 이득지각의 차이가 위험감수선택에 영향을 미쳤다(정은경 등, 2011). 이는 자기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들이 위험감수행동과의 관계에서 이득지각이 위험지각보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득지각을 높이는 자기애의 고유한 기제를 밝혀보고자 자기애 → 이득지각 → 위험감수의 경로에서 자기애와 이득지각사이의 매개변인을 탐구하였다.

자기애 성향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득,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손해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기파괴적 행동이라고 하는데(Miller et al., 2009), 도박, 일탈적 이성교제, 무모한 경제적 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많은 연구에서 자기애의 자기파괴적 행동을 충동성으로 설명하여 왔다. 충동성과 자기애는 다수의 연구를 종합했을 때 $r=.41(p<.05)$ 의 평균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 두 특성은 부적절한 상황에서도 자기 강화를 하며, 자아 위협에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대인관계, 적응, 성취의 영역에서 장기적인 손실, 단기적인 이득의 패턴을 보이는 등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Vazire & Funder, 2006).

그런데 Whiteside와 Lynam(2001)은 부정적 긴

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추구의 4개 구성요소로 충동성이 구성된다고 제안하였고, Bechara와 Van der Linden(2005)은 이 4개 구성요소 중 감각추구가 동기를 일으키고 나머지 세요소가 인지적인 과정을 거쳐 자기조절 능력을 갖게 된다는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한편 Miller 등(2009)은 20개의 대표적인 충동성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4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중 네 번째 요인은 감각추구로 정의되었는데, 추출된 4개의 요인이 자기애와 자기 파괴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을 때 네 번째 요인인 감각추구만이 매개하였다. 또한 Maslowsky, Buvinger, Keating, Steinber와 Cauffman(2011)은 충동성은 억제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반면, 감각추구는 스릴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자기애 성향자들이 행동의 억제를 가져오는 위험지각 수준은 보통사람들과 유사하지만 행동의 추구를 가져오는 이득지각 수준은 보통사람들 보다 높다고 한 Foster 등(2010)의 연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애와 이득지각간의 관계에 충동성이 아닌 감각추구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감각추구는 생물학적 기질에 가까운 특성으로 알려졌으나(Zuckerman, 1985), 근래 이러한 특성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적 환경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 Arnett(1994)의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규준에 순종적이지 않은데, 이들은 잠재적인 처벌보다는 잠재적인 보상에 더 민감하다(Zuckerman, 1985). Katz, Fromme과 D'Amico(2000)은 감각추구와 이득지각이 위험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감각추구는

과음 및 위험한 성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유의미한 정적상관($r=.19, .17, p<.05$), 과음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유의미한 부적상관($r=-.18, p<.05$)을 보였고, 감각추구가 6개월 동안의 과음에 미치는 영향은 과음에 대한 이득-위험지각 각각에 의해 매개되었다. Maslowsky 등(2011)은 감각추구가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이득-위험지각이 매개함을 밝혔다. 예컨대 다양한 위험행동 중 음주에 미치는 감각추구의 영향에서 긍정적 기대(이득지각)는 35%의 매개효과 설명량을 보였고, 부정적 기대(위험지각)는 3%의 설명량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술한 자기애와 감각추구의 연구들과 감각추구와 이득-위험지각의 연구들에 기초해 자기애 성향자들이 이득을 확대 지각하는 것이 감각추구성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감각추구가 자기애와 이득-위험지각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절변인 연구의 필요성

이득지각과 위험감수의 상관은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상관정도가 $r=.31 \sim .63$ (Foster et al., 2010; Maslowsky et al., 2011; Urban, Kokonyei, & Demetrovics, 2008)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높은 편이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지민(2005)의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의 회귀계수 값이 .14($p<.01$), 비행은 .12($p<.05$)로 비교적 낮게 나왔다. 다른 한편, 위험지각과 위험감수의 관계는 때로 $r=-.32$ ($p<.001$; 정형식, 이승희, 김영심, 2005)까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정은경 등, 2011)를 보이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득-위험지각과 위험감수간 관계에 조절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통적으로 약물, 음주 등 위험감수행동과 낮은 자존감과의 관련성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여 왔다(Crocker & Knight, 2005). 그러나 근래 높은 자존감이 높은 학업성취, 업무수행, 리더십을 야기하거나, 낮은 자존감이 폭력, 흡연, 음주, 약물사용, 어린 나이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연구(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를 비롯하여 자존감의 수준이 항상 부적응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생겨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자존감이 높고 낮음 보다는 자신의 가치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관심과 노력 및 성과가 달라진다는 조건부 자아가치감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Crocker, Luthanen, Copper, & Bouvrette, 2003). 예컨대 Luhtanen과 Crocker(2005)의 연구에서 자존감 수준은 대학 1학년의 음주를 예측하지 않은 반면 조건부 자아가치감은 예측했다.

Crocker와 Wolfe(2001)는 7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중 도덕성, 가족의 사랑, 신의 사랑을 내적 조건부 자아가치감, 외모, 경쟁, 학업능력, 타인의 승인을 외적 조건부 자아가치감으로 나누었다. 국내에서는 신의 사랑, 도덕성, 가족의 지지, 우월, 타인의 승인의 5개 영역으로 번안, 타당화 되었다. 따라서 신의 사랑, 도덕성, 가족의 지지를 내적 조건부 자아가치감으로 우월, 타인의 승인을 외적 조건부 자아가치감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을 내적, 외적 조건부 자아가치감으로 구분했을 때, 대체로 내적 조건부 자아가치감

은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외적 조건부 자아 가치감은 위험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즉, 외모에 자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약물 사용율이 더 높았던 반면 도덕, 신의 사랑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알콜 사용을 더 많이 억제했다. 또 학업에 가치감을 둔 사람들은 학업 성적이 떨어졌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이 된다(vanDellen, Hoy, Fernandez, & Hoyle, 2011). 또한 외모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 신체에 관한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높으면, 섭식장애증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abik, Cole, & Ward, 2010), 도덕성,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은 아동기 학대와 약물중독과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되었다(Kim & Williams, 2009).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해 우월, 타인의 승인 조건부 자아가치감은 이득-위험지각과 위험감수의 관계의 위험요인이 되고, 신의 사랑, 도덕성,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은 보호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기에의 유형과 측정

본 연구는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자기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자기에는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다양하고(Ronnigstam, 2009), 임상심리 분야와 사회심리 분야간 자기에의 정의와 구성개념 측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임상심리학자들은 자기에의 오만한 행동, 특권의식, 공감의 부족, 타인에 대한 착취 등의 병리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사회/성격 심리학자들은 자기에가 정서적 탄력성 있고 외향적인 성향이라고 보고 자기에의 정상적인 면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Pincus & Lukowitsky, 2010; Rosenthal & Hooley, 2010; Zeigler-Hill, Green, Arnau, Sisemore,

& Myers, 2011).

지금까지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자기에적 성격검사(NPI; Raskin & Hall, 1979)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NPI가 자기에를 재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에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한쪽에만 치우친 척도일 수 있다. NPI는 DSM-III의 자기에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기초로 개발되었으나 비임상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외향적이고, 정서적 탄력성을 가진 자기에의 적응적인 측면을 측정한다(Miller & Campbell, 2008). 신경증과 NPI점수는 부적상관을 보이고(Rhodewalt & Morf, 1995), NPI 하위요인 중 리더쉽/권위주의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감을 예측한다(Watson, Little, Sawrie, & Biderman, 1992). 병리적인 측면은 착취, 특권의식과 같은 웅대성에만 국한된다(Cater, Zeigler-Hill, & Vonk, 2011). NPI 전체점수는 정서적 부적응과 관련된 병리적 자기에와는 전반적으로 다를 수 있고(Watson, Trumperter, O'Leary, Morris & Culhane, 2005-2006), 적응적인 모습과 부적응적 모습이 섞여있지만, 자기에 전체를 아우르는 척도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Cain, Pincus, & Ansell, 2008).

Pincus 등(2009)은 자기에의 복잡한 유형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자기에는 크게 정상적 자기에와 병리적 자기에로 나뉘고, 이 두 자기에 각각은 다시 웅대하고 취약한 모습의 하위 유형을 가진다. 그리고 이 웅대함과 취약함 각각은 또다시 외현적, 내현적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는 다시 분류적/차원적/원형적인 모습의 하위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자기에의 웅대함과

취약성을 함께 측정하는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를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웅대성은 조증과 폭력성을 예언하고, 취약성은 우울, 정신증, 수면장애를 예언하였다(Ellison, Levy, Cain, & Pincus, 2009). 또한 자존감은 웅대성과 정적상관을 취약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Pincus et al., 2009). PNI는 병리적인 자기에를 잘 측정한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NPI를 통해 연구되었던 자료들과 비교하여 정상적 자기에와 병리적 자기에를 구분하고 자기에의 정의와 측정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Maxwell, Donnellan, Hopwood, & Ackerman, 2011; Rosenthal & Hooley,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척도 모두를 사용하여 위험감수와의 관계에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았다.

근래에 자기에와 위험감수의 관계는 도박(Lakey, Rose, Campbell, & Goodie, 2008), 운전(Britt & Garrity, 2006), 컨닝(Brunell, Staats, Barden, & Hupp, 2011), 거식증과 대식증(Davis & Scott-Robertson, 2000; Maples, Collins, Miller, Fischer, & Seibert, 2011), 일중독(Clark, Lelchok, & Taylor, 2010) 등의 특정 위험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다수 연구되었다. 또한 근래 위험감수의 연구에서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Blais & Weber, 2006; Soane et al., 2010; Mishra & Lalumiere, 2011). 즉 위험감수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였을 때 위험감수 영역이나 상황이 다르면 일관된 위험감수 행동을 보이지 않고 영역과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MacCrimmon과 Wehrung(1990)은 오래전에 경영가들이 레크레이션 영역과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위험을 평가할 때 상당히 다른 위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고 하였는데, 이런 경향은 근래 연구들에서 재확인되고 있어

영역별 위험감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Mishra & Lalumiere,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를 번안, 타당화하고, 위험감수 영역별로 자기에와 위험감수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1. 특정영역 위험감수척도(K-DOSPERT)의 타당화

연구 1에서는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를 번안, 타당화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충청도와 경상도에 소재한 대학에서 1차시기에 250명의 대학생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237명(남102, 여135)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2차시기에 1차시기와 다른 표집의 대학생 250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210명(남104, 여135)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The Domain Specific Risk Taking Scale: DOSPERT)

위험감수행동, 이득지각과 위험지각 측정은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DOSPERT; Blais & Weber, 2006)를 사용하였다.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예: “연봉의 5%를 투기성 높은 주식에 투자하기”)과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얼마나 이득

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위협을 어느 정도로 지각하는지를 측정한다. 윤리, 도박, 투자, 건강과 안전, 레크레이션, 사회 위험감수 6개 요인으로 나누어지고, 총 30문항이며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위험감수 척도가 .87, 이득지각 척도가 .84, 위험지각 척도가 .84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윤리 위험감수가 .79, 레크레이션 위험감수가 .80, 도박 위험감수가 .91, 투자 위험감수가 .71, 사회 위험감수가 .63,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가 .61로 나타났다.

감각추구 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 V)

유진과 강필중(200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릴과 모험추구, 경험 추구, 권태 민감성, 탈 제지의 4개 요인으로, 총 28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4로 나타났으며,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Short Form: IUS-12)

Freeston 등(1994)이 개발한 것을 김순희(2010)가 새롭게 수정한 IUS-12의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을 못 견디는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2로 나타났으며,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

하였다. 신체적, 언어적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의 4개 하위요인을 갖는 총 27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7으로 나타났으며,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위험감수성향 척도(Risk-Taking

Questionnaire: RTQ)

Knowles, Cutter, Walsh와 Casey(1973)가 개발한 위험감수성향 척도를 이홍표(2002)가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홍표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요인으로 결정되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7점 Likert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7로 나타났으며, 동시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구절차

원척도 번안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 원 문항을 우리말로 번역-역번역 절차를 통해 번안하였다. 우선 본 척도를 연구자가 번역하였고, 이를 캐나다에서 20여년간 거주해온 심리학 대학원생이 역번역하였으며, 원척도와 역번역 척도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원어민 미국인이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그 후 역번역자와 연구자가 번역, 역번역, 평정치를 비교하여 최종 수정하였다.

통계적 분석

SPSS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확인

1차시기의 237명의 자료로 SPSS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주성분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 프로맥스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좋은 문항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적어도 한 요인에 속하는 문항수가 3~4개 이상이어야 안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2차 시기의 201명 자료로 AMO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omparative Fit Index(CFI)와 Tucker-Lewis Index(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사용하였다. CFI와 TLI는 .90이상 합당한 모형으로 간주하였고, RMSEA는 .08 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으로 간주하였다(홍세희, 2000).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로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한 타당도 확인

특정영역 위험감수 원척도의 개발자가 요인 분석 시에 사용한 감각추구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가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공격성 척도는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에서 변안 및 타당화된 위험감수성향 척도가 동시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K-DOSPERT)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30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적합도인 KMO(Kaiser-Meyer-Olkin Measure)는 .812로 문항 간 상관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Kaiser, 1974),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값은 2501.953, $df=435$, $p=.000$ 으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므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이 사용되었으며, 사각회전으로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해 본 결과 요인 수가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8개 요인의 고유치는 6.458, 2.987, 2.245, 1.641, 1.488, 1.275, 1.109, 1.065이었다. 이론적 가설과 Scree 도표를 참고하여 요인의 수를 4~8개로 차례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이상의 문항을 갖으며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은 6개로 간주되어 최종 요인 수는 6요인으로 결정하였다. 6요인으로 설명된 총 분산은 53.646%로 나타났다. 요인에 속한 문항의 요인부하량 .30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문항이 이를 만족하여 제거하지 않았다.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의 문항내용과 요인 부하량, 문항-하위요인간 상관, 내적 합치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5번 문항인 '사교적인 연회에 참석해서 과음하기'는 원척도에서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 영역에 속하는 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 투자 위험감수 영역에 속하며, 15번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 갖기', 17번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기', 20번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하기' 문항은 원척도에서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개발되었지만

결 과

표 1. 특정영역 위험감수척도의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문항-하위요인간 상관, 내적 합치도

문항내용 전체 (.866)				요인		
요인 1. 윤리 위험감수 (.791)						
30. 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운 후 돌려주지 않기	.815	.102	.010	-.166	.048	-.119
6. 내가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환급이 되었을 때 그대로 받기	.719	.060	-.073	-.117	.289	-.107
10. 타인의 성과를 나의 것인 채하기	.660	-.016	.172	-.073	-.034	-.055
17.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기	.583	-.185	-.122	.266	-.033	.078
16.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기	.538	-.248	.064	.162	.050	.086
15.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 갖기	.516	.239	-.053	.105	-.168	.016
20.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하기	.417	.084	-.045	.196	-.102	.289
9. 유부남/유부녀와 성관계 갖기	.397	.179	.321	-.101	-.118	.064
요인 2. 레크레이션 위험감수(.795)						
24. 고도가 높은 다리에서 번지점프하기	.024	.771	-.011	-.006	-.017	.145
19. 스카이다이빙 배우기	.091	.755	-.157	.173	.120	-.156
25. 경비행기 조종하기	-.097	.739	-.041	.081	.152	.047
13. 봄에 물 수위가 높은 곳에서 급류 래프팅하기	.169	.641	.086	.051	-.142	.056
11. 내 실력을 넘어서는 비탈 코스에서 스키타고 내려가기	.157	.476	.107	-.205	-.039	.296
2. 야생의 자연으로 야영가기	-.300	.446	.019	.274	.105	-.017
요인 3. 도박 위험감수(.905)						
8. 하루 일당 전부를 거액의 배당금이 걸린 포커게임에 걸기	.068	-.040	.909	.021	.081	-.070
14. 하루 일당 전부를 스포츠 내기 도박에 걸기	-.001	.052	.903	.004	-.021	-.003
3. 하루 일당 전부를 경마도박에 걸기	-.022	-.110	.836	.168	.099	.003
요인 4. 투자 위험감수(.706)						
4. 연봉의 10%를 손해가 어느 정도 있는 펀드에 투자하기	-.188	-.010	.152	.725	-.079	.096
12. 연봉의 5%를 투기성 높은 주식에 투자하기	.050	.175	-.042	.707	-.084	-.025
18. 연봉의 10%를 새로운 벤처사업에 투자하기	.042	.103	.152	.634	.134	-.066
5. 사교적인 연회에 참석해서 과음하기	.302	.102	-.112	.497	.077	.052
요인 5. 사회 위험감수(.629)						
7.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권위 있는 인물의 의견에 반대하기	.087	-.065	.099	.064	.651	-.012
1. 친구들의 취향과 나의 취향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265	.051	.050	.039	.608	-.113
21. 안정된 직업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직업을 선택하기	-.155	.017	-.025	-.123	.606	.206
22. 회의시간에 모두가 말하기 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 말하기	-.053	.259	.033	-.025	.576	-.069
28. 삼십대 중반에 새로운 직업으로 전향하기	-.055	-.068	.010	-.033	.570	.509
요인 6.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609)						
23. 자외선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빛 아래에서 일광욕하기	-.241	.091	-.018	.158	.047	.656
27.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사 가기	.191	.060	-.108	-.112	.171	.635
26. 위험한 지역을 밤에 혼자 걸어서 귀가하기	-.080	.340	.073	-.093	-.135	.608
29. 어린자녀를 집에 혼자 있게 하고 나가서 자기 볼일 보기	.240	-.291	-.020	.147	-.051	.535
요인 고유치	6.458	2.987	2.245	1.641	1.488	1.275
전체설명변량(%)				53.646		

본 연구에서 윤리 위험감수 영역에서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또한 27번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기’, 29번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있게 하고 나가서 자기 볼일 보기’는 원칙도에서 각각 사회, 윤리 위험감수 영역에 속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윤리 위험감수와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의 상관성이 비교적 높으며,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두는 일이 미국에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안전하지 않은 문제로 비춰질 수 있는 점 등의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칙도와는 다른 영역에 속하게 되었으나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 그대로 두게 되었다. 또한 9번 ‘유부남/유부녀와 성관계 갖기’는 윤리 위험감수에 속하지만 도박 위험감수에서 .321의 요인부하량을, 28번 ‘삼십대 중반에 새로운 직업으로 전향하기’는 사회 위험감수 영역에 속하지만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509의 요인부하량을, 26번 ‘위험한 지역을 밤에 혼자 걸어서 귀가하기’는 건강과 안전 영역에 속하지만 레크레이션 영역에서 .340의 요인부하량을, 5번 ‘사교적인 연회에 참석해서 과음하기’는 투자 위험감수 영역에 속하지만 윤리 위험감수에서 .302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이는 교차부하의 기준에 속하지만, 이 척도의 개발자인 Blais와 Weber(2006)도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문항들을 받아들였고 위험행동의 특성상 두 가지의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다음으로 각 요인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별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요인 1은 ‘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운 후 돌려주지

않기(30번 문항)’ 등의 8문항으로 ‘윤리 위험감수’라고 명명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791이다. 요인 2는 ‘고도가 높은 다리에서 번지점프하기(24번 문항)’ 등의 6문항으로 ‘레크레이션 위험감수’라고 명명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795이다. 3요인은 ‘하루 일당 전부를 거액의 배당금이 걸린 포커게임에 걸기(8번 문항)’ 등의 3문항으로 ‘도박 위험감수’라고 명명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905이다. 요인 4는 ‘연봉의 10%를 손해가 어느 정도 있는 펀드에 투자하기(4번 문항)’ 등의 3문항으로 ‘투자 위험감수’라고 명명하였고 내적일치도는 .706이다. 5요인은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권위 있는 인물의 의견에 반대하기(7번 문항)’ 등의 5문항으로 ‘사회 위험감수’라고 명명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629이다. 6요인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빛 아래에서 일광욕하기(23번 문항)’ 등의 4문항으로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라고 명명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609이다.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요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사회 위험감수와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의 상관은 .381($p < .01$)로 가장 높았고 사회 위험감수와 윤리 위험감수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6개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전체 위험감수행동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r = .504 \sim .729, p < .01$).

수렴타당도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는 감각추구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각추구는 레크레이션 위험감수와 .599의 높은 상관을 보였고, 도박 위험감수와 .244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하위 요인별로 가장 높은 상관은 스릴과 모험추구와 레크

레이션 위험감수 척도가 .677, 탈제지와 윤리 위험감수가 .416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각각 .56, .53으로 역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척도는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 사회 위험감수척도가 각각 -.273, -.267로 높은 상관을 보였고, 윤리 위험감수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회 위험감수와 레크레이션 위험감수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각각 -.30, -.42의 결과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도 이를 스트레스로 경험하고, 불확실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 회피하려고 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수행을 어려워하

기 때문에(Buhr & Dugas, 2002), 위험감수행동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며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타당도

위험감수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공격성과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공격성 척도는 도박 위험감수와 .322의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 레크레이션,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투자 위험감수와 .210 정도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이 각각 위험감수와 .25, .21의 상관을 보였던 선행연구(Honekopp, 2011)와 비슷한 결과로 공격성과 위험감수가 변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 2. 특정영역 위험감수와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

	사회	레크레이션	도박	투자	윤리	건강과 안전
스릴과 모험추구	.182**	.677**	.079	.219**	.180*	.145*
경험추구	.403**	.327**	.127	.266**	.082	.282**
권태민감성	.261**	.210**	.163*	.267**	.075	.063
탈제지	-.042	.179*	.324**	.391**	.416**	.101
평균	.336**	.599**	.244**	.426**	.276**	.24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267**	-.229**	-.169*	-.235**	-.084	-.273**
신체 공격성	-.012	.097	.360**	.230**	.341**	.016
언어 공격성	.389**	.162*	.269**	.293**	.193**	.128
분노감	.029	-.093	.215**	.083	.082	-.035
적의성	-.104	-.019	.140*	.058	.050	-.143*
평균	.060	.048	.322**	.210**	.228**	-.023
위험감수성향	.383**	.421**	.327**	.431**	.219**	.369**

** $p < .01$, * $p < .05$.

동시타당도

위험감수를 제는 척도로서 한국에서 타당화된 척도는 위험감수성향 척도(RTQ)가 있다. 이 척도와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영역별로 상관이 차이가 날것으로 기대한 바대로 투자 위험감수와 .431로 가장 상관이 높았고, 윤리 위험감수와 .219로 가장 낮았다.

연구 2.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 감각추구와 이득-위험지각의 매개효과 및 조건부 자아가치감의 조절효과

선행연구에 기초해 그림 1과 같이 자기애와 위험감수간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에서 경로를 설정한 연구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에서 이득지각에 이르는 경로는 직접경로와 감각추구를 통한 간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는 Miller 등(2009)의 연구에서 자기애가 음주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감각추구가 부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자기애에서 위험감수에 이르는 경로는 직접경로와 이득지각을 통한 간접경로를 설정하였고, 위험지각을 통한 간접경로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Foster 등(2010)의 연구에서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를 이득지각이 부분매개하고 위험지각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셋째, 감각추구에서 위험감수에 이르는 경로는 직접경로와 이득지각과 위험지각을 통한 간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는 감각추구가 과음행동이나 위험한 성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예측하고, 6개월 동안의 과음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이득지각과 위험지각이 부분매개 한다는 Katz 등

(2000)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연구문제 1. NPI로 측정된 자기애와 PNI로 측정된 자기애가 위험감수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차이를 알아본다.

가설 1: NPI와 PNI로 측정된 자기애는 모두 위험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PNI로 측정된 자기애는 NPI로 측정된 자기애보다 위험감수를 더 많이 설명할 것이다.

가설 3: 병리적 자기애 중 웅대성 자기애는 취약성 자기애보다 위험감수를 더 많이 설명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자기애가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각추구와 이득지각에 의해 매개되는지 알아본다.

가설 1: 이득-위험지각은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감각추구는 자기애와 이득-위험지각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경로모형에서 이득-위험지각과 위험감수의 관계를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조절하는지 알아본다.

가설 1: 도덕, 가족,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높은 경우, 이득-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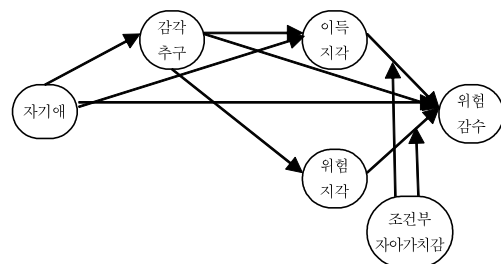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가설 2: 우월, 승인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높은 경우, 이득-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질 것이다.

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방 법

연구대상

충청도와 경상도에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 497명(남 259, 여 238, 평균나이 만 20.03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자기애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한수정(1999)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Raskin과 Hall(1979)의 자기애 성격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0문항의 단축형을 사용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0~40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으로 나타났다.

특정영역 위험감수(The Domain Specific

Risk Taking Scale: DOSPERT)

연구 1과 동일.

조건부 자아가치감(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SCWS)

Crocker 등(2003)이 개발한 후 국내에서 이수란과 이동귀(2008)가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우월성, 타인의 승인, 신의 사랑, 가족의 지지, 도덕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총 27문항이며, 7점 Likert 척도로 평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 Scale - V)

연구 1과 동일.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Pincus 등(2009)이 개발한 후 국내에서 양진원(2012)이 번안, 타당화하였다. 변동하는 자존감, 웅대한 환상, 평가절하, 착취, 특권분노, 자기희생-자기고양의 6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35문항이며,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Pincus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요인별로 .78~.93, 전체 점수에 대해서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기애가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에 감각추구, 이득-위험지각이 매개하는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bootstrapping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자기애와 이득-위험지각,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경로를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

편차 및 자기애와 위험감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었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NPI자기애는 위험감수와 $r=.142(p<.01)$ 의 상관을 보였고, NPI자기애의 하위 요인과 사회, 레크레이션,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윤리, 투자, 도박 위험감수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NPI의 권력욕구/특권의식은 위험감수 전체점수와 $r=.063(p=ns.)$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NI자기애는 위험감수와 $r=.315(p<.01)$ 의 상관을 보였고, 위험감수의 하위요인들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정적 상관을 보였다. PNI자기

애의 하위요인인 자기애적 웅대성은 위험감수와 $r=.332(p<.01)$ 의 상관을 보였고, 웅대성의 하위요인은 위험감수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웅대한 환상과 도박 위험 감수가 $r=.319(p<.01)$ 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희생-자기고양과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가 $r=.068(p=ns.)$ 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취약성은 위험감수와 $r=.262(p<.01)$ 의 상관을 보였고, 취약성의 하위요인은 위험감수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평가절하와 사회 위험감수가 $r=.079(p=ns.)$ 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취약성 하위요인과 레크레이션 위험감수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취약성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사회 RT	레크 레이션 RT	도박 RT	투자 RT	건강과 안전 RT	윤리 RT	RT 총점	NPI	PNI	이득 지각	위험 지각	감각 추구
사회RT	1											
레크레이션 RT	.388**	1										
도박RT	.221**	.258**	1									
투자RT	.313**	.405**	.365**	1								
건강과 안전RT	.326**	.436**	.397**	.430**	1							
윤리RT	.265**	.274**	.450**	.404**	.648**	1						
RT총점	.574**	.691**	.646**	.729**	.778**	.716**	1					
NPI	.201**	.230**	.091*	.079	-.009	-.009	.142**	1				
PNI	.171**	.098*	.227**	.203**	.272**	.371**	.315**	.175**	1			
이득지각	.280**	.347**	.444**	.392**	.431**	.482**	.572**	.093*	.370**	1		
위험지각	-.194**	-.252**	-.261**	-.393**	-.369**	-.295**	-.432**	-.017	-.114*	-.319**	1	
감각추구	.368**	.638**	.250**	.361**	.413**	.328**	.578**	.236**	.305**	.358**	-.224**	1
평균	24.509	22.439	9.759	19.747	17.551	16.740	110.745	14.839	75.127	86.159	158.239	84.370
SD	5.228	7.599	6.526	7.660	6.611	5.827	27.367	5.798	26.660	27.522	30.939	14.064

** $p<.01$, * $p<.05$, RT Risk-Taking(위험감수).

표 4. NPI, PNI자기애, 위험감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사회 RT	레크 레이션RT	건강과 안전RT	윤리 RT	투자 RT	도박 RT	위험감수 총점
N P I	리더십/자신감	.237**	.232**	.107*	.058	-.020	-.057	.135**
	권력욕구/특권의식	.093*	.164**	.046	.045	-.051	-.053	.063
	과시/칭찬욕구	.104*	.133**	.010	.071	.031	.068	.101*
	우월의식	.159**	.128**	.131**	.059	.032	.038	.129**
P N I	응대성	.232**	.199**	.195**	.225**	.234**	.313**	.332**
	자기희생-자기고양	.120**	.095*	.068	.124**	.151**	.154**	.170**
	착취	.198**	.225**	.245**	.209**	.175**	.248**	.312**
	웅대한 환상	.222**	.154**	.155**	.194**	.215**	.319**	.296**
	취약성	.098*	.016	.230**	.161**	.257**	.359**	.262**
	변동하는 자존감	.091*	.014	.169**	.139**	.238**	.295**	.221**
	특권분노	.094*	.008	.183**	.167**	.225**	.360**	.242**
	평가절하	.079	.022	.263**	.126**	.229**	.308**	.240**

** $p < .01$, * $p < .05$, RT Risk-Taking(위험감수).

하위요인 중 특권분노는 도박 위험감수와 $r = .360(p < .01)$ 의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기애와 위험감수간 경로모형 및 매개효과

모수추정치의 적합성을 먼저 평가할 필요가 있다(배병렬, 2009). 모수추정치의 적합성 평가는 경로계수의 방향성(+, -), 오차분산이 음수인 경우나 1이상의 표준화추정치 등의 위반추정치가 있는지의 여부, 모수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위주로 검토한다. 경로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치의 적합성을 검토해 보면, 먼저 NPI와 PNI자기애 → 감각추구 → 이득지각 → 위험감수 경로와 감각추구 → 위험감수, 감각추구 → 이득지각 → 위험감수의 경로는 적절한 방향성을 보였으며, 위반추정치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NPI자기애 → 이득지각 → 위험감수 경로 중 NPI자기애 → 이득지각의 경로계수와 NPI자기애 → 위험감수의 경로계수($p = .669$)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PNI자기애 → 위험감수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다른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NPI모형과 PNI모형 모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의 경우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 이하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여, 경로모형이 자기애, 감각추구, 이득지각, 위험감수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모형으로 판단된다.

NPI연구모형의 구조경로는 그림 2와 표 6

표 5.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NPI모형	전체RT	.519	1	.471	1.009	1.000	.000
	사회RT	.519	1	.471	1.019	1.000	.000
	레크레이션RT	.519	1	.471	1.011	1.000	.000
	도박RT	.519	1	.471	1.017	1.000	.000
	윤리RT	.519	1	.471	1.015	1.000	.000
	투자RT	.519	1	.471	1.015	1.000	.000
	건강과 안전RT	.519	1	.471	1.013	1.000	.000
PNI모형	전체RT	.648	1	.421	1.006	1.000	.000
	사회RT	.648	1	.421	1.011	1.000	.000
	레크레이션RT	.648	1	.421	1.007	1.000	.000
	도박RT	.648	1	.421	1.010	1.000	.000
	윤리RT	.648	1	.421	1.008	1.000	.000
	투자RT	.648	1	.421	1.009	1.000	.000
	건강과 안전RT	.648	1	.421	1.008	1.000	.000

RT Risk-Taking(위험감수).

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NP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를 예언하며($\beta=.217, p<.001$),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373,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을 예언하였으며, 위험감수는 높은 이득지각($\beta=.342, p<.001$), 낮은 위험지각($\beta=-.221, p<.001$), 높은 감각추구(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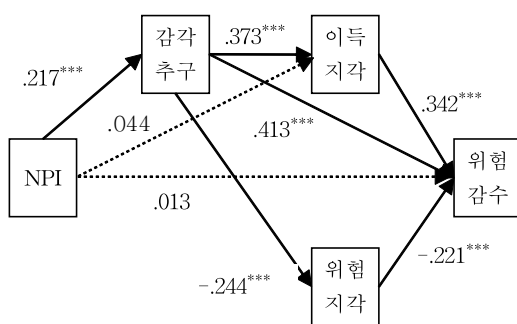


그림 2. NPI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경로모형(표준화 계수)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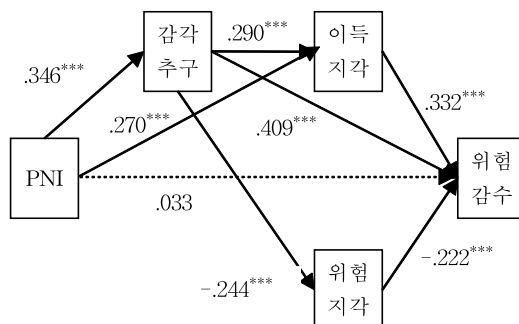


그림 3. PNI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경로모형(표준화 계수)

*** $p<.001$.

표 6. NPI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경로모형의 경로계수와 t검증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value	p
NPI자기애	→	감각추구	.586	.217	.118	4.952	.001
감각추구	→	이득지각	.571	.373	.065	8.811	.001
감각추구	→	위험지각	-.420	-.244	.075	-5.603	.001
NPI자기애	→	이득지각	.183	.044	.170	1.079	.281
이득지각	→	위험감수	.340	.342	.034	10.026	.001
위험지각	→	위험감수	-.196	-.221	.029	-6.831	.001
감각추구	→	위험감수	.629	.413	.051	12.218	.001
NPI자기애	→	위험감수	.055	.013	.128	.428	.669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감각추구							
위험지각							
이득지각							
위험감수							

=.413, $p<.001$)에 의해 예언되었다. PNI연구모형의 구조경로는 그림 3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PN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beta=.346$, $p<.001$)와 높은 이득지각($\beta=.270$, $p<.001$)를 예언하며,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290$, $p<.001$)과 낮은 위험지각(β

표 7. PNI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value	p
PNI자기애	→	감각추구	.236	.346	.029	8.226	.001
감각추구	→	이득지각	.443	.290	.065	6.856	.001
감각추구	→	위험지각	-.420	-.244	.075	-5.603	.001
PNI자기애	→	이득지각	.282	.270	.043	6.575	.001
이득지각	→	위험감수	.331	.332	.035	9.379	.001
위험지각	→	위험감수	-.196	-.222	.029	-6.857	.001
감각추구	→	위험감수	.621	.409	.052	11.898	.001
PNI자기애	→	위험감수	.034	.033	.035	.974	.330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감각추구							
위험지각							
이득지각							
위험감수							

$=-.244, p<.001$)을 예언하였다. 위험감수는 높은 이득지각($\beta=.332, p<.001$), 낮은 위험지각($\beta=-.222, p<.001$), 높은 감각추구($\beta=.409, p<.001$)에 의해 예언되었다.

NPI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NPI자기애와 이득지각의 관계에서 감각추구의 매개효과는 95%신뢰구간에 $BC(.174, .509)$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NPI자기애와 위험지각의 관계에서 감각추구의 매개효과는 95%신뢰구간에 $BC(-.414, -.115)$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감각추구와 위험감수의 관계에서 이득-위험지각의 매개효과는 95%신뢰구간에 $BC(.190, .366)$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NPI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에서 감각추구, 이득-위험지각의 매개효과는 95%신뢰구간에 $BC(.322, .864)$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PNI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NI자기애와 이득지각의 관계에서 감각추구의 매개효과는 95%신뢰구간에 $BC(.068, .146)$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PNI자기애와 위험지각의 관계에서 감각추구의 매개효과는 95%신뢰구간에 $BC(-.152, -.054)$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감각추구와 위험감수의 관계에서 이득-위험지각의 매개효과는 95%신뢰구간에 $BC(.147, .309)$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PNI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에서 감각추구, 이득-위험지각의 매개효과

는 95%신뢰구간에 $BC(.230, .361)$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자기애와 특정영역 위험감수간 경로모형 및 매개효과

다음으로 위험감수 하위유형에 따라 연구모형을 경로분석하고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각 경로모형과 경로계수는 그림 4부터 그림 15에 제시되어 있다. NPI자기애 모형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NP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를 예언하며($\beta=.217, p<.001$),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373,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을 예언하였으며, 사회 위험감수는 높은 NPI자기애($\beta=.129, p<.01$), 높은 감각추구($\beta=.255, p<.001$), 높은 이득지각($\beta=.140, p<.01$)에 의해 예언되었다. 레크레이션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NP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를 예언하며($\beta=.217, p<.001$),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373,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을 예언하였으며, 레크레이션 위험감수는 높은 NPI자기애($\beta=.087, p<.05$), 높은 감각추구($\beta=.556, p<.001$), 높은 이득지각($\beta=.097, p<.05$), 낮은 위험지각($\beta=-.084, p<.05$)에 의해 예언되었다. 도박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NP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를 예언하며($\beta=.217, p<.001$),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373,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을 예언하였으며, 도박 위험감수는 높은 감각추구($\beta=.102, p<.05$), 높은 이득지각(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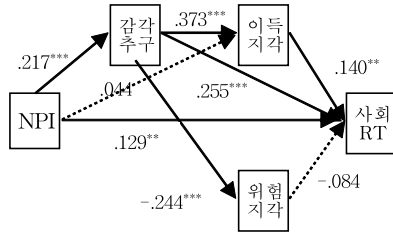


그림 4. NPI자기애와 사회적RT의 경로모형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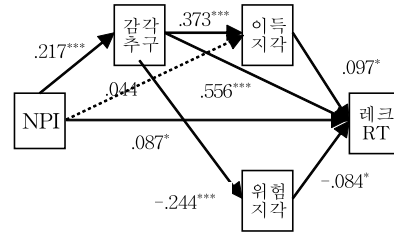


그림 5. NPI자기애와 레크레이션RT의 경로모형

*** $p < .0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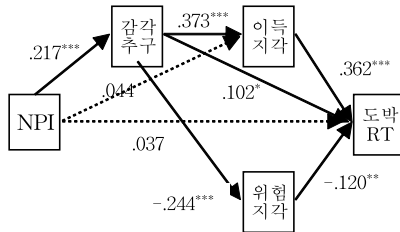


그림 6. NPI자기애와 도박RT의 경로모형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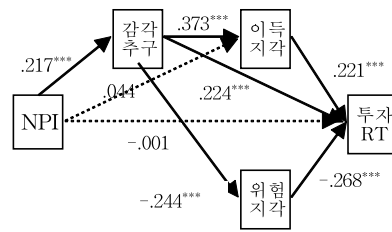


그림 7. NPI자기애와 투자RT의 경로모형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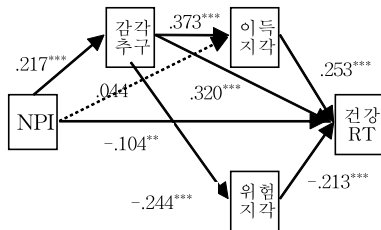


그림 8. NPI자기애와 건강과 안전RT의 경로모형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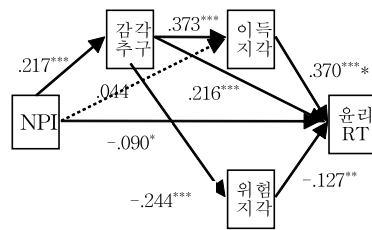


그림 9. NPI자기애와 윤리적RT의 경로모형

*** $p < .001$, ** $p < .01$, * $p < .05$.

$=.362$, $p < .001$), 낮은 위험지각($\beta = -.120$, $p < .01$)에 의해 예언되었다. 투자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NP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를 예언하며($\beta = .217$, $p < .001$),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 = .373$, $p < .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 = -.244$, $p < .001$)을 예언하였으며, 투자 위험감수는 높은 감각추구($\beta = .224$, $p < .001$), 높은 이득

지각($\beta = .221$, $p < .001$), 낮은 위험지각($\beta = -.268$, $p < .001$)에 의해 예언되었다.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NP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를 예언하며($\beta = .217$, $p < .001$),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 = .373$, $p < .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 = -.244$, $p < .001$)을 예언하였으며,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는 낮은 NPI자기애($\beta =$

-.104, $p < .01$), 높은 감각추구($\beta = .320$, $p < .001$), 높은 이득지각($\beta = .253$, $p < .001$), 낮은 위험지각($\beta = -.213$, $p < .001$)에 의해 예언되었다. 윤리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9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NP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를 예언하며($\beta = .217$, $p < .001$), 높은 감각추

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 = .373$, $p < .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 = -.244$, $p < .001$)을 예언하였으며, 윤리 위험감수는 낮은 NPI자기애($\beta = -.090$, $p < .05$), 높은 감각추구($\beta = .216$, $p < .001$), 높은 이득지각($\beta = .370$, $p < .01$), 낮은 위험지각($\beta = -.127$, $p < .01$)에 의해 예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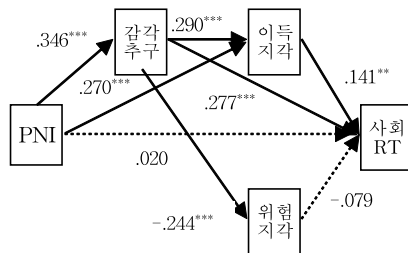


그림 10. PNI자기애와 사회RT의 경로모형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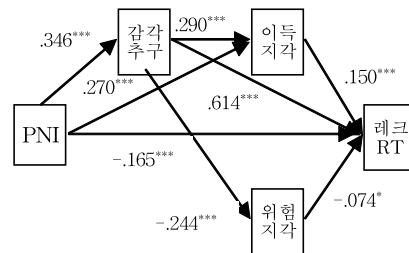


그림 11. PNI자기애와 레크레이션RT의 경로모형
*** $p < .0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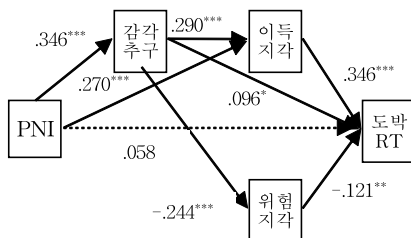


그림 12. PNI자기애와 도박RT의 경로모형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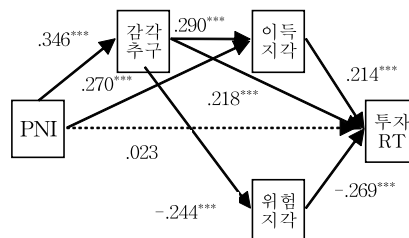


그림 13. PNI자기애와 투자RT의 경로모형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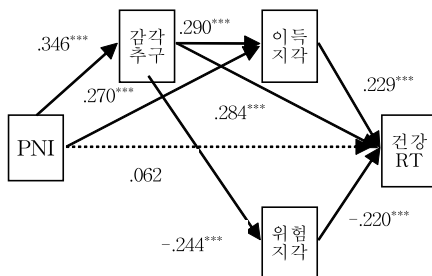


그림 14. PNI자기애와 건강과 안전RT의 경로모형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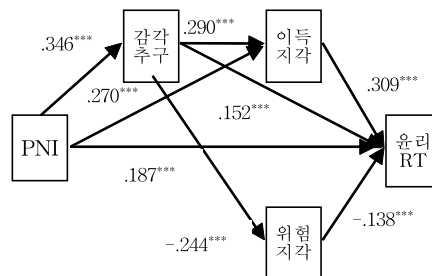


그림 15. PNI자기애와 윤리RT의 경로모형
*** $p < .001$.

다음으로 PNI자기애 모형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10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PN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beta=.346, p<.001$)와 높은 이득지각($\beta=.270, p<.001$)을 예언하며,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290,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을 예언하였으며, 사회 위험감수는 높은 감각추구($\beta=.277, p<.001$), 높은 이득지각($\beta=.141, p<.01$)에 의해 예언되었다. 레크레이션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PN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beta=.346, p<.001$)와 높은 이득지각($\beta=.270, p<.001$)을,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290,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을 예언하였으며, 레크레이션 위험감수는 낮은 PNI자기애($\beta=-.165, p<.001$), 높은 감각추구($\beta=.614, p<.001$), 높은 이득지각($\beta=.150, p<.001$), 낮은 위험지각($\beta=-.074, p<.05$)에 의해 예언되었다. 도박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12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PN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beta=.346, p<.001$)와 높은 이득지각($\beta=.270, p<.001$)을,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290,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을 예언하였으며, 도박 위험감수는 높은 감각추구($\beta=.096, p<.05$), 높은 이득지각($\beta=.346, p<.001$), 낮은 위험지각($\beta=-.121, p<.01$)에 의해 예언되었다. 투자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13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PN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beta=.346, p<.001$)와 높은 이득지각($\beta=.270, p<.001$)을,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290,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을 예언하였으며, 투자 위험감수는 높은 감각추구($\beta=.218,$

$p<.001$), 높은 이득지각($\beta=.214, p<.001$), 낮은 위험지각($\beta=-.269, p<.001$)에 의해 예언되었다.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14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PN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beta=.346, p<.001$)와 높은 이득지각($\beta=.270, p<.001$)을,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290,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을 예언하였으며,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는 높은 감각추구($\beta=.284, p<.001$), 높은 이득지각($\beta=.229, p<.001$), 낮은 위험지각($\beta=-.220, p<.001$)에 의해 예언되었다. 윤리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은 그림 15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PNI자기애는 높은 감각추구($\beta=.346, p<.001$)와 높은 이득지각($\beta=.270, p<.001$)을,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이득지각($\beta=.290, p<.001$)과 낮은 위험지각($\beta=-.244, p<.001$)을 예언하였으며, 윤리 위험감수는 높은 PNI자기애($\beta=.187, p<.001$), 높은 감각추구($\beta=.152, p<.001$), 높은 이득지각($\beta=.309, p<.001$), 낮은 위험지각($\beta=-.138, p<.001$)에 의해 예언되었다.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 → 이득지각의 경로가 NPI모형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고, PNI모형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이는 감각추구가 NPI자기애와 이득지각의 관계를 완전매개, PNI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는 것으로 위험감수 전체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경로모형의 결과와 같다. 둘째, 자기애 → 위험감수의 경로를 살펴보면 종속변인이 도박, 투자 위험감수의 경우는 NPI, PNI자기애 경로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PNI자기애 모형의 경우 사회,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경로모형에서도 자기애 → 위험감수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위험지각 → 사회

위험감수의 경로가 NPI, PNI자기에 경로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득-위험지각과 전체위험감수 간 경로에서 조건부 자아가치감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5개 영역의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해보았다.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이득-위험지각에서 위험감수로 가는 경로에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가했다. 그 결과 NPI, PNI자기에 모두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CSW)을 평균치 기준으로 나눈 고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득지각과 위험감수행동간 경로

NPI모형의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2, N=497)=3.429, p=.180$; TLI=.976; RMSEA=.038이다.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3, N=497)=8.367, p=.039$; TLI=.939; RMSEA=.060로 두 모형의 χ^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df=1, N=497)=4.938, p<.05$). 이것은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 집단의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197(p<.001)$ 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400(p<.001)$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PNI모형의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2, N=497)=4.280, p=.118$; TLI=.965; RMSEA=.048이다.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3, N=497)=8.306, p=.040$; TLI=.946; RMSEA=.060로 두 모형의 χ^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df=1, N=497)=4.026, p<.05$). 이것은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 집단의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193(p<.001)$ 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383(p<.001)$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험지각과 위험감수행동간 경로

NPI모형의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2, N=497)=3.429, p=.180$; TLI=.976; RMSEA=.038이다. 위험지각에서 위험감수로 이어지는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3, N=497)=13.067, p=.004$; TLI=.885; RMSEA=.082로 두 모형의 χ^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df=1, N=497)=9.637, p<.05$).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355(p<.001)$ 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146(p<.001)$ 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PNI모형의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2, N=497)=4.280, p=.118$; TLI=.965; RMSEA=.048이다. 위험지각에서 위험감수로 이어지는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3, N=497)=14.624, p=.002$; TLI=.882; RMSEA=.088로 두 모형의 χ^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df=1, N=497)=9.637, p<.05$).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359(p<.001)$ 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

치감 저 집단에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 = -.143(p < .001)$ 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득-위험지각과 특정영역 위험감수간 경로에서 조건부 자아가치감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NPI와 PNI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위험감수의 하위척도 6가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12개 경로모형의 이득-위험지각 → 위험감수의 경로에 5종류의 조건부 자아가치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조절변인 고저집단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난 모형의 회귀계수를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을 살펴보면, NPI모형의 이득-위험지각에서 위험감수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χ^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먼저 이득지각 → 위험감수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이 도박 위험감수의 경우는 도덕성, 가족의 지지, 우월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 = .169(p < .05)$ 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 = .474(p < .001)$ 으

표 8. 이득-위험지각과 위험감수간 경로에서 조건부 자아가치감의 조절효과(NPI자기애)

제약을 가한 경로		이득지각 → 위험감수						위험지각 → 위험감수				
종속변인(RT)		도박RT		건강과 안전RT		사회RT	투자RT	레크레이션RT		투자RT	윤리RT	
조절변인(CSW)		도덕성	가족의 지지	우월성	도덕성	가족의 지지	신의 사랑	도덕성	우월성	도덕성	가족의 지지	신의 사랑
NPI	χ^2	9.856	9.228	8.974	10.612	9.022	8.262	8.444	9.564	13.757	7.464	5.144
	df	3	3	3	3	3	3	3	3	3	3	3
	p	.020	.026	.030	.014	.029	.041	.038	.023	.003	.058	.162
	χ^2/df	3.285	3.096	2.991	3.537	3.007	2.754	2.815	3.188	4.586	2.488	1.715
	TLI	.856	.862	.865	.871	.862	.893	.921	.902	.800	.914	.958
	CFI	.978	.979	.980	.981	.979	.984	.988	.985	.970	.987	.994
	RMSEA	.068	.065	.063	.072	.064	.060	.061	.066	.085	.055	.038
	χ^2	3.429	2.979	4.801	3.429	2.979	.735	3.429	4.801	3.429	2.979	.735
	df	2	2	2	2	2	2	2	2	2	2	2
	p	.180	.225	.091	.180	.225	.692	.180	.091	.180	.225	.692
Free 모형	제약모형											
	χ^2 -free모형 χ^2	6.427*	6.309*	4.172*	7.183**	6.043*	7.527**	5.014*	4.763*	10.327**	4.485*	4.409*
	조절 변인	고집단	.169*	.181**	.226***	.066	.243***	.142*	-.182**	-.148**	-.408***	-.324***
변인	저집단	.474***	.439***	.437***	.342***	.067	.309***	-.024	-.001	-.173**	-.162**	-.194***

*** $p < .010$, ** $p < .01$, * $p < .05$, RT Risk-Taking(위험감수).

표 9. 이득-위험지각과 위험감수간 경로에서 조건부 자아가치감의 조절효과(PNI자기애)

제약을 가한 경로				이득지각 → 위험감수				위험지각 → 위험감수			
종속변인(위험감수)		도박RT		건강과 안전RT		사회RT		투자RT		건강과 안전RT	
조절변인(CSW)		도덕성	가족의 지지	도덕성	가족의 지지	신의 사랑	타인의 승인	도덕성	가족의 지지	도덕성	
P N I		χ^2	9.824	8.013	9.630	6.328	12.897	4.469	15.330	5.992	9.444
		<i>df</i>	3	3	3	3	3	3	3	3	3
	제약 모형	<i>p</i>	.020	.046	.022	.097	.005	.215	.002	.112	.024
		χ^2/df	3.275	2.671	3.210	2.109	4.299	1.490	5.110	1.997	3.148
		TLI	.883	.914	.904	.939	.839	.975	.808	.954	.906
		CFI	.982	.987	.986	.991	.976	.996	.971	.993	.986
		RMSEA	.068	.058	.067	.047	.082	.031	.091	.045	.066
	Free 모형	χ^2	4.280	1.395	4.280	1.395	7.066	.593	4.280	1.395	4.280
		<i>df</i>	2	2	2	2	2	2	2	2	2
		<i>p</i>	.118	.498	.118	.498	.029	.743	.118	.498	.118
	계약모형 x ² -free모형x ²		5.545*	6.618*	5.350*	4.933*	5.831*	3.876*	11.050**	4.597*	5.164*
	조절 변인	고집단	.156*	.153*	.054	.243***	.153*	.294***	-.414***	-.323***	-.435***
		저집단	.446***	.425***	.302***	.081	.298***	.132*	-.170**	-.159**	-.193**

*** $p < .010$, ** $p < .01$, * $p < .05$, RT Risk-Taking(위험감수).

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 = .181(p < .01)$ 로,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 = .439(p < .001)$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월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 = .226(p < .001)$ 로, 우월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 = .437(p < .001)$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속변인이 건강과 안전 조건부 자아가치감 위험감수의 경우는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 = .066(p = ns.)$ 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 = .342(p < .001)$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속변인이 사회 위험감수의 경우는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 = .243(p < .001)$ 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 = .067(p = ns.)$ 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종속변인이 투자 위험감수의 경우는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142$ ($p<.05$)로,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309$ ($p<.0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위험지각 → 위험감수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이 레크레이션 위험감수의 경우는 도덕성, 우월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위험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182$ ($p<.01$)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024$ ($p=ns.$)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월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148$ ($p<.01$)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월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001$ ($p=ns.$)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속변인이 투자 위험감수의 경우는 도덕성,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위험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408$ ($p<.001$)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173$ ($p<.01$)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324$ ($p<.001$)로,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162$ ($p<.01$)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속변인이 윤리 위험감수

의 경우는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위험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023$ ($p=ns.$)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194$ ($p<.01$)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9를 살펴보면, PNI모형의 이득-위험지각에서 위험감수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χ^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먼저 이득지각 → 위험감수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이 도박 위험감수의 경우는 도덕성,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156$ ($p<.05$)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446$ ($p<.0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153$ ($p<.05$)로,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425$ ($p<.0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속변인이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의 경우는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덕성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054$ ($p=ns.$)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302$ ($p<.0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속변인이 사회 위험감수의 경우는 가족의 지지 조건

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243(p<.001)$ 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081(p=ns.)$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속변인이 투자 위험감수의 경우는 신의 사랑, 타인의 승인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이득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153(p<.05)$ 로,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298(p<.001)$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타인의 승인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이득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294(p<.001)$ 로, 타인의 승인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132(p<.05)$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위험지각 → 위험감수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이 투자 위험감수의 경우는 도덕성,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위험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414(p<.001)$ 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170(p<.01)$ 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 집단에서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323(p<.001)$ 로,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159(p<.01)$ 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속변인이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의 경우는 도덕

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집단의 위험지각에서 위험감수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집단에서 위험지각은 위험감수에 $\beta=-.435(p<.001)$ 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저 집단에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beta=-.193(p<.01)$ 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론적 가설과 일치하게 윤리, 사회, 도박, 투자, 건강과 안전, 레크레이션 6요인 구조의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가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의 6요인 구조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을 통한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감각추구 척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와 적절한 상관을 보이면서 수렴하였고, 공격성 척도와 낮은 상관을 보이면서 변별되었으며, 위험감수성향 척도(RTQ)와도 적절한 상관을 보여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가 위험감수행동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자기애가 이득지각과 위험지각 중 이득지각만을 매개로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Foster 등(2010)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 자기애와 이득지각 간에 작용하는 자기애의 고유한 기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각추구를 주목하고 자기애와 이득-위험지각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자

기애에서 위험감수행동으로 이르는 경로들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애 → 감각추구 → 이득-위험지각 → 위험감수의 각 경로가 유의미하였고, 감각추구와 이득지각은 정적관계, 감각추구와 위험지각은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는 감각추구성향을 높여 위험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지각을 높일 뿐 아니라 위험에 대한 지각을 낮추어 위험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Zuckerman(1985)은 감각추구가 일정 부분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보았으나, Arnett(1994)은 이러한 특성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가정환경을 포함하는 사회적 환경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애성향이 높은 사람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허용적인 양육환경을 제공받았거나 자기대상의 결핍을 경험하였기 쉽다(Foster & Trimm, 2008). 이에 따라 이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고 내적인 억제제가 부족하게 됨으로서 감각추구성향이 발달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감각추구성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애는 감각추구성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기애와 위험감수에 관한 매개변인 연구는 상호교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2개의 구성개념인 접근-회피동기와 이득-위험지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는데,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를 Foster과 Trimm(2008)의 연구에서는 접근동기와 회피동기 모두가 매개하였으나, Foster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이득지각만이 매개하고, 위험지각은 매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런 선행연구의 불일치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즉

Foster 등(2010)은 이러한 불일치를 회피동기를 재는 척도의 문장이 ‘불확실함’ 뿐 아니라 ‘약함’을 반영한다고 지적하면서 척도상의 문제가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보면 자기애 성향자의 회피동기와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감각추구가 매개 또는 조절변인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새롭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기 원하고 또는 일상생활에 순응하기 보다는 강렬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감각추구의 성향이 높다면 이 성향이 자기애와 상호작용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위험지각(회피동기)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애 성향자의 위험감수행동을 낮추기 위해 치료 및 교육적 개입을 할 때에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이득지각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Foster et al, 2010),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경우는 위험지각 또한 낮아지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NPI와 PNI 자기애 모형 모두에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은 이득지각, 위험지각이 위험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먼저, 이득지각이 위험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위험지각이 위험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도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위험지각이 위험감수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할 때 자신이 가치있다고 여기는 성향이 많을수록 위험상황에서 지각하는 이득-위험지각이 위험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동체적 자기애와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공동체적 자기애는 기존의 자기애적 특징을 공유하기는 하나 이와는 구분된다(Gebauer, Sedikides, Verplanken, & Maio, 2012). Gebauer 등(2012)에 의하면 자기애는 보여지는 것을 과장하는 영웅적인 자기개념과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미덕에 가치를 두고 이를 과장하려는 성인군자적 자기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공동체적 자기애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는 PNI의 자기희생-자기고양 하위척도에 뿌리를 두고 있기도 한데(Lue, Cai, Sedikides, & Song, 2014), 웅대성, 자아존중감, 힘, 특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타인을 배려함으로서 자기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장한다. 나아가 인도주의적 지원기구에 대한 지식을 갖기도 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자기애성향자들이 위험상황에서 도덕성 자아가치감 수준이 높다면 이득-위험지각이 위험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체적 자기애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추후 연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험감수행동의 6가지 하위유형에 따라 나타난 차이를 논의하기로 한다. 모형의 경로를 살펴보면, 위험지각이 6개 유형의 위험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험지각 → 사회 위험감수의 경로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관계나 직업선택에서 모험을 감

수하는 사회 위험감수의 경우에는 감각추구가 이득지각을 높임으로써 위험감수행동을 증가시키나, 감각추구가 위험지각을 낮추더라도 그것이 위험감수행동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자기애가 위험감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기에 → 위험감수의 경로에서 도박, 투자 위험감수의 경우에는 경로의 회귀계수 값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애 성향이 직접 위험감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감각추구와 이득-위험지각의 매개를 통해서 도박이나 투자 위험감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가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접근동기가 완전매개한 Foster 등(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절변인 연구의 경우 위험감수의 6개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알아보았을 때,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체점수의 경우는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지만,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는 이득지각 → 위험감수 경로에서 NPI모형의 도박 위험감수는 도덕성, 가족의 지지, 우월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는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사회 위험감수는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투자 위험감수는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PNI모형의 도박 위험감수의 경우 도덕성,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의 경우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사회 위험감수의 경우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투자 위험감수의 경우 신의 사랑, 타인의 승인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험지각 → 위험감수 경로에서 NPI모형의 레크레이션 위험감수는 도덕성, 우

월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투자 위험감수는 도덕성,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윤리 위험감수는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PNI모형의 투자 위험감수의 경우 도덕성,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 건강과 안전 위험감수의 경우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고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위험감수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영역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감수행동 수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각각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위험과 이득을 다른 양으로 지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위험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득지각과 위험지각이 개인, 집단,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Bontempo, Bottom, & Weber, 1997; Slovic, 1998; Johnson, Wilke, & Weber, 2004). 그런데 이러한 이득지각과 위험지각을 통제하면,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집단, 영역과 무관하게 상당한 일관성을 보였다(Weber, 2001). 즉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영역에 상관없이 일관적이지만, 위험감수의 특정한 영역에서 지각하는 이득과 위험의 수준과 양에는 개인차가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험감수 연구가 영역-특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사회 위험감수의 경우, NPI모형과 PNI모형 모두에서 예측과 다르게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이득지각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는 가족의 지지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위험요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회 위험감수가 다른 위험감수 영역들과 반대의 결과를 보인 것은 사회

위험감수를 측정하는 문항이 대인관계 자율성을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위험지각 → 윤리 위험감수 경로에서 예측과 다르게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높을 때 부적 회귀계수가 작아져 위험요인 역할을 하였다. 예측과 다른 이 결과는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높다면 처벌이나 손해 가능성 때문에 윤리적 위험감수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보통사람들의 경향성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의 사랑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윤리적 위험감수에 처벌이나 손해가 두려운 위험지각과는 다른 차원의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NPI모형에서 예측과 다르게 이득지각 → 도박 위험감수 경로, 위험지각 → 레크레이션 위험감수 경로에서 우월성 조건부 자아가치감 수준이 높을 때 정적 회귀계수가 작아지거나 부적 회귀계수가 커져 보호요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도박이나 레크레이션과 같은 활동에서 위험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우월성이 높은 사람들은 너무 과도한 이득이나 위험을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NPI모형에서만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에 주목할 수 있다. NPI자기애는 건강한 자기애를 반영하는 척도로 부적응적인 모습은 특권 의식과 착취의 하위요인에만 국한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우월성의 건강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itte, Callahan와 Mark(2002)의 자기애와 분노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NPI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권력욕구/특권 의식은 분노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우월의식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비교적 건강한 우월성을 가진 NPI자기애의 경우 우월성에 자기가치감을 두게 된다면 위험상황에서 이득지각과 위험지각

을 과도해지지 않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그 동안 자기애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온 NPI척도와 최근 개발된 PNI척도를 모두 사용하여 자기애와 위험감수행동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NPI자기애는 감각추구의 완전매개를 통해 이득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NPI자기애는 감각추구를 통해 이득지각을 확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세히 살펴보면 NPI의 긍정적인 특성에 속하는 리더십/자신감은 위험감수와 상관을 보인 반면, 병리적 특성에 속하는 권력욕구/특권의식(Carter et al., 2011)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PNI자기애는 부분매개로 감각추구를 통해 이득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자세히 살펴보면 NPI자기애와 달리 PNI자기애는 웅대성과 취약성 모두 위험감수와 정적상관을 보였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NPI자기애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또한 자기애에서 감각추구로 가는 경로에서 NPI보다 PNI자기애가 더 높은 경로계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NI자기애가 NPI자기애보다 병리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NPI척도를 통해 측정된 위험감수행동은 리더십/자신감과 같은 비교적 건강한 자기애의 모습이 감각추구성향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PNI자기애를 통해 측정된 위험감수행동이 이와 다른 것은 자기애의 다양한 모습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NPI척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발된 PNI척도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각추구 이외에 다른 어떤 변인이 PNI자기애의 이득-위험지각과 위험감수 사이에 작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만을 이용하여

횡단적으로 연구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또는 행동관찰이나 실험법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애와 위험감수행동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접근-회피동기와 이득-위험지각의 역할을 통해 자기애성향자가 위험회피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득추구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밝혔지만, 자기애와 이득-위험지각 및 위험감수의 관계에서 중재변인들이 연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감각추구, 조건부 자아가치감을 사용하여 자기애와 위험감수행동의 관계에 작용하는 매개 및 조절변인을 탐색하였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보다 새로운 중재변인의 탐색과 함께, 최근 연구되고 있는 자기애의 초기 경험에 대한 연구(Carter et al., 2011; Cramer, 2011)와 전술한 공동체적 자기애를 다루어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순희 (2010).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 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박소영, 정은경, 손영우 (2012). 개인적 특성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51-67.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양진원 (2012).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연옥 (2011). 다이어트에서 위험감수 의사결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진, 강필중 (2003). 한국형 감각추구척도의 타당화 검증과 스포츠 참가 예측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2), 249-264.
- 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 평가 간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0), 313-335.
- 이지민 (2005).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이득 및 소실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7), 147-158.
- 이홍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중훈 (2012). 상품 구매 시 구전에 의한 위험감수 및 위험회피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경, 김봄메, 손영우 (2011). 조절초점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209-221.
- 정형식, 이승희, 김영심 (2005).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과 동료압력이 성형행동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관리연구* 10(1), 165-184.
- 최원희, 손정우, 김영랑, 이상익, 신철진, 김시경, 주가원 (2011).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서의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2), 103-111.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사회복지 전문가를 위한 연구방법론 III.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 Anderson, C., & Galinsky, A. D. (2006). Power, optimism, and risk-tak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 511-536.
-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289-296.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1-44.
- Bechara, A., & Van der Linden, M. (2005). Decision-making and impulse control after frontal lobe injuries. *Current Opinion Neurology*, 18, 734-739.
- Becker, J., & Steinhoff, M. (2014). Tax accounting principles and corporate risk-taking. *Economics Letters*, 125, 79-81.
- Blais, A., & Weber, E. U. (2006). A domain-specific risk-taking scale for adult populations.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1, 33-47.
- Bontempo, R. N., Bottom, W. P., & Weber, E. U. (1997).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A model-based approach. *Risk Analysis*, 17, 479-488.
- Britt, T. W., & Garrity, M. J. (2006). Attributions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the road rage respons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 127-147.
- Broihanne, M. H., Merli, M., & Roger, P. (2014).

- Overconfidence, risk perception and the risk-taking behavior of finance professionals. *Original Research Article Finance Research Letters*, 11(2), 64-73.
- Brunell, A. B., Staats, S., Barden, J., & Hupp, J. M. (2011). Narcissism and academic dishonesty: The exhibitionism dimension and the lack of guil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0, 323-328.
- Buhr, K., &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931-945.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638-656.
- Campbell, W. K., Hoffman, B. J., Campbell, S. M., & Marchisio, G. (2011). Narcissism in organizational context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21(4), 268-284.
- Cater, T. E., Zeigler-Hill, V., & Vonk, J. (2011). Narcissism and recollections of early life experi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935-939.
- Clark, M. A., Lelchook, A. M., & Taylor, M. L. (2010). Beyond the big five: How narcissism, perfectionism, and dispositional affect relate to workahol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786-791.
- Costello, A. B., & Osborne, J. W. (200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0(7), 1-9.
- Cramer, P. (2011). Narcissism through the ages: What happens when narcissists grow olde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 479-492.
- Crocker, J., & Knight, K. M. (2005). Contingencies of self-wor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4), 200-203.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 593-623.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S.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94-908.
- Davis, C., & Scott-Robertson, L. (2000). A psychological comparison of females with anorexia nervosa and competitive male bodybuilders: Body shape ideals in the extreme. *Eating Behaviors*, 1, 33-46.
- Ellison, W., Levy, K. N., Cain, N. M., & Pincus, A. L. (2009). *The impact of client narcissism on psychotherapy course and outcome*. Paper presented at the mid-atlantic region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Philadelphia, PA.
- Ferguson, M. A., Valenti, J. M., & Melwani, G. (1991). Communicating with risk takers: A public relations perspective. *Public Relations Research Annual*, 3, 195-224.
- Foster, J. D., & Trimm, R. F. (2008). On being

- eager and uninhibited: Narcissism and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1004-1017.
- Foster, J. D., Misra, T. A., & Reidy, D. E. (2009). Narcissists are approach-oriented toward their money and their friend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764-769.
- Foster, J. D., Reidy, D. E., Misra, T. A., & Goff, J. S. (2011). Narcissism and stock market investing: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cocksure inves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816-821.
- Foster, J. D., Shenese, J. W., & Goff, J. S. (2010). Why do narcissists take more risks? Testing the roles of perceived risks and benefits of risky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885-889.
- Freud, S. (1957).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4, 67-104.
- Gebauer, J. E., Sedikides, C., Verplanken, B., & Maio, G. R. (2012). Communal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 854-878.
- Gray, J. A. (1982). *The neuropsychological of anxiety: An enquiry into the functions of the septo-hippocampal system*. New York, NY: Clarendon Press/Oxford University Press.
- Hamstra, M. R. W., Bolderdijk, J. W., & Veldstra, J. L. (2011). Everyday risk taking as a function of regulatory focu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 134-137.
- Hoffmann, J. P. (1995).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 on adolescent marijuana us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30(10), 1207-1241.
- Honekopp, J. (2011). Relationships between digit ratio 2D:4D and self-reported aggression and risk taking in an online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77-80.
- Johnson, J. G., Wilke, A., & Weber, E. U. (2004). Beyond a trait view of risk-taking: A domain-specific scale measuring risk perceptions, expected benefits, and perceived-risk attitude in German-speaking populations.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35, 153-172.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 Katz, E. C., Fromme, K., & D'Amico, E. J. (2000). Effects of outcome expectancies and personality on young adults' illicit drug use, heavy drinking, and risky sexual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10), 1-22.
- Kim, J. M., & Williams, S. (2009). Linking childhood maltreatment to substance use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worth contingencie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 & Trauma*, 18(1), 88-105.
- Knowles, E. S., Cutter, H. S. G., Walsh, D. H., & Casey, N. A. (1973). Risk-taking as a personality trai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 123-129.
- Lakey, C. E., Rose, P., Campbell, W. K., & Goodie, A. S. (2008). Probing the link between narcissism and gambling: The mediating role of judgment and decision-making biase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1, 113-137.
- Lue, Y. L. L., Cai, H., Sedikides, C., & Song, H.

- (2014). Distinguishing communal narcissism from agentic narcissism: A behavior genetics analysis on the agency-communion model of narciss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9, 52-58.
- Luhtanen, R. K., & Crocker, J. (2005). Alcohol use in college students: Effects of level of self-esteem, narcissism,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9(1), 99-103.
- MacCrimmon, K. R., & Wehrung, D. A. (1990). Characteristics of risk taking executives. *Management Science*, 36, 422-435.
- Maples, J., Collins, B., Miller, J. D., Fischer, S., & Seibert, A. (2011). Differences between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and bulimic symptoms in young women. *Eating Behaviors*, 12, 83-85.
- Maslowsky, J., Buvinger, E., Keating, D. P., Steinberg, L., & Cauffman, E. (2011). Cost-benefit analysis medi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risk behavior amo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802-806.
- Maxwell, K. M., Donnellan, B., Hopwood, C. J., & Ackerman, R. A. (2011). The two faces of Narcissus? An empirical comparis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577-582.
- Miller, J. D., & Campbell, W. K.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personality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6, 449-476.
- Miller, J. D., Campbell, W. K., Young, D. L., Lakey, C. E., Reidy, D. E., Zeichner, A., & Goodie, A. S. (2009). Examining the relations among narcissism, impulsivity, and self-defeating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77(3), 761-793.
- Millon, T.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II, Axis II*. New York: Wiley-Interscience.
- Mishra, S., & Lalumiere, M. L. (2011). Individual differences in risk-propensity: Associ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behavioral measures of ris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869 - 873.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a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 365-379.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for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hodewalt, F., & Morf,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Ronningstam, E. (2009).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Facing DSM-IV. *Psychiatric Annals*, 39, 111-121.
- Rosenthal, S. A., & Hooley, J. M. (2010).

- Narcissism assessment in social-personality research: Does the association between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health result from a confound with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453-465.
- Sabik, N. J., Cole, E. R., & Ward, L. M. (2010). Are all minority women equally buffered from negative body image? Intra-ethnic moderators of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 139-151.
- Slovic P. 1997. Trust, emotion, sex, politics, and science: surveying the risk-assessment battlefield. In M. Bazerman, D. Messick, A. Tenbrunsel, & Wade-Benzoni K,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to Environmental and Ethical Issues in Management* (pp. 277-313). Jossey-Bass: San Francisco, CA.
- Soane, E., Dewberry, C., & Narendran, S. (2010). The role of perceived costs and perceived benefi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risk-related choices. *Journal of Risk Research*, 13(3), 303-318.
- Urban, R., Kokonyei, G., & Demetrovics, Z. (2008).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drinking motives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Addictive Behaviors*, 33, 1344-1352.
- vanDellen, M. R., Hoy, M. B., Fernandez, K., & Hoyle, R. H. (2011). Academic contingent self-worth and the social monitoring syst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59-63.
- Vazire, S., & Funder, D. C. (2006). Impulsivity and the self-defeating behavior of narcissis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154-165.
- Watson, P. J., Little, T., Sawrie, S. M., & Biderman, M. D. (1992). Measur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Complexity of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4, 434-449.
- Watson, P. J., Trumpler, N., O'Leary, B. J., Morris, R. J., & Culhane, S. E. (2005-2006). Narcissism and self-esteem in the presence of imagined others: Supportive vs. destructive object representations and the continuum hypothesis.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25, 253-268.
- Weber, E. U. (2001). Personality and risk taking. In N. J. Smelser & P. B. Balte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pp. 11274-11276). Oxford, UK: Elsevier.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1).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669-689.
- Witte, T. H., Callahan, K. L., & Mark, P. (2002). Narcissism and anger: an exploration of underlying correlates. *Psychological reports*, 90(3), 871-875.
- Zavala, G., & Cichocka, A. (2011). Collective narcissism and anti-Semitism in Poland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5(2), 213-229.
- Zeigler-Hill, V., Green, B. A., Arnau, R. C., Sisemore, T. B., & Myers, E. M. (2011). Trouble ahead, trouble behind: Narcissism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2, 96-

103.

Zuckerman, M. (1985). Biological foundations of sensation seeking temperament. In J. J. Strelau, F. H. Farley, & A. Gale, (Eds.). *The Biological Bases of personality and Behavior*. Washington, D. C: U. S. Hemisphere.

논문 투고일 : 2015. 06. 17

1 차 심사일 : 2015. 06. 29

게재 확정일 : 2015. 08. 25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Risk-taking: An Exploration of Intervening Variables

Jung Sun Yun

Sung Moon L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study I, Domain-Specific Risk Taking Scale(DOSPRT)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was validated that it had 6 factors structure and showed adequate reliability and validity, using the data had been collected from 438 participants. In study 2, two research problems were examined using the data had been collected from 497 participants who were different from study I. First, the mediation effect of sensation seeking and perceived benef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risk-taking were examined. Using path analysis, it found that sensation seeking and perceived benefi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PI narcissism and risk-taking fully, and between PNI narcissism and risk-taking partially. Seceond, the moderate effect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CS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enefit-risk and risk-taking was examined. Using multi-group analysis, it found that virtue CSW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enefit-risk and total risk-taking, various CSWs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benefit-risk and 6 sub domains of risk-taking.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of risk-taking and discussed the relevance of the narcissistic type.

Key words : Narcissism, Risk-Taking, Perceived Benefit, Perceived Risk, Sensation Seeking, Contingencies of Self-Worth.